



## 교회와 문화 제37호

ISSN : 1598-4737(Print)

### 예수님의 재림

송영목

To cite this article : 송영목 (2015) 예수님의 재림, 교회와 문화, 37, 105-134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교회와 문화」 37 (2016): 105-34.

## 예수님의 재림

송영목 박사 (고신대학교/ 신약신학)



### I. 들어가면서

진자(振子)운동에서 추가 한 쪽으로 쏠리면 맞은편에서 멀어지는 것은 순리다. 유사하게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강조로 인해 미래성은 위축될 여지가 항존 한다. 재림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는 성부만 아심에도 불구하고,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재림의 시기를 추측하여 내세만 소망했던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한 바 있었다. 그 때 신약학계는 균형 잡힌 치유책으로 현재적 종말과 이미 임한 천국을 강조한 바 있다.<sup>1</sup>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오늘 날은 천국의

---

<sup>1</sup> 1980년대 시한부 종말론을 이어서 발생한 1992년에 다미선교회가 일으킨 몰의 직후에 발표된 그리스도 중심적인 종말론을 위해서는 정훈택, “기독론적 종말론: 신약의 종

이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오히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고 설교단에서 재림의 나팔소리가 잠잠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sup>2</sup>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 재림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교회는 현세에 함몰되지 않고 깨어 있으려는 의도로 “말세지말(末世之末)을 산다”고 종종 고백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완성을 갈구해야 함은 당연하기에, 재림에 대한 체계적인 주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상업성 목시적 영화에 노출된 현대인으로 하여금 지구의 종말을 종종 외계에서 지구를 침입한 세력이나 핵전쟁과 연결하려는 시나리오의 허구를 직시하도록 한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의학적 연구는 적지 않지만,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주석적 연구는 드물다.<sup>3</sup> 따라서 이 연구는 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서신,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재림에 관한 구절을 하나씩 주석함으로써, 그 구절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통일성 있는 목소리를 내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세 사도인 바울,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서신들로 교회들을 권면한다. 재림에 관한 논의는 교리적으로나 주석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기에, 오히려 주석적으로 통일성 있게 전체를 꿰매는 작업을 통해서 교회에 체계적으로 이론을

말론 연구”, 「성경과 신학」 13 (1993): 74를 보라. 정훈택은 종말론을 독립된 주제로 두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구원론, 하나님 나라, 성도의 윤리와 연결시킨다.

<sup>2</sup> 현대 교회의 설교에서 재림이 번두리로 밀려난 원인을 천국을 도래시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만큼 중요하거나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서 찾는 입장은 C. A. Gieschen, “Christ’s Coming and the Church’s Mission in 1Thessalonians,”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76 (2012, 1), 37을 보라.

<sup>3</sup> 이런 주석적 작업은 J.A. Du Rand, *Die Einde: Die A-Z van die Bybelse Booskap oor die Eindtyd* (Vereeniging: CUM, 2013).

제시할 필요가 절실하다. 주석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창조와 죽음, 재림, 몸의 부활이라는 성경의 큰 구속사적 전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림에 관한 구절은 다양한 해석을 산출해왔고, 특별히 어떤 천년 왕국론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이견은 팽팽하다. 재림에 관련된 하나의 본문을 연구하는 것도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한된 지면에 신약 성경 가운데 용어와 사상에 있어 재림과 가장 명시적으로 직결된 다섯 본문을 석의하여 종합 및 비교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미래종말론에 관한 본 연구는 다섯 본문이 재림을 밝히는 요점을 중심으로 주석할 것이다.

## II. 마태복음 24:34-25:13

1864년 콜라니(T. Colani) 이래로 ‘작은 묵시록’이라 불리는 감람산강화는 톰 라이트(N. T. Wright)가 주장하듯이 재림은 배제하고 AD 70년 사건만 다루는가?<sup>4</sup> 아니면 AD 70년 사건과 재림을 동시에 다루는가? 두 주제를 동시에 다룬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전환 구절은 어디인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참고 마 24:14). 아무도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기에(마 24:36),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복음 전파와 재림의 관계를 모호하게 말씀하셨는가?<sup>5</sup> 적지 않은 학자들에 의하면 반위접속사(δ ῥ)로 시작하는 29절에서 주제가 전환된다(막 13:24에는 Ἀλλ’).<sup>6</sup> 즉 29절 이전에는 ‘너희’가 설교의 청중이지만,

<sup>4</sup> N. T.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1996]), 527. 참고, T. R. Hatina, “The Focus of Mark 13:24–27: The Parousia, or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BBR* 42 (1996, 2): 45.

<sup>5</sup> B. L. Merkle, “Could Jesus return at any Moment?: Rethinking the Imminence of the Second Coming,” *Trinity Journal* 26 (2005): 281.

29절부터는 ‘너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마태복음 24:29는 물론 19절과 22절에도 등장하는 ‘그 날들’(τῶν ἡμερῶν ἐκείνων)은 동일한 환난의 날을 가리키므로,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논리다.<sup>7</sup> 그러나 이 논리를 따른다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수반된 환난 직후인 AD 1세기 중후반에 주님의 재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너희’는 29절 이후에도 종종 나타난다(마 24:33, 43; 25:12, 13).

더 나아가 29절에서 주제 전환을 찾는 이들은 29-31절의 구약 간 본문과 성경 상징주의를 적절히 고려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종종 주제가 전환되는 구절로 간주되는 29절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묵시적 표현으로서 문자적 해석이 아닌 광명체로 묘사된 하나님의 대적들에 임할 심판이라는 상징적 해석을 요청한다(사 13:10; 14:12; 34:4, 12; 욥 2:31; 학 2:6; 행 2:20; 계 6:13).<sup>8</sup> 해가 빛을 잃는다고 할 때,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창 1:2), 복이 사라지고 애통하는 것(암 8:9-14), 심판(욥 2:2)을 상징한다.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사야 13장에서 해와 달과 별은 그 당시 바벨론에 흔했던 점성술의 빛에서 볼 때, 왕 같은 권력가를 상징한다.<sup>9</sup>

그리고 30절은 계시록 1:7과 간(間)본문인데, ‘땅’(γῆ, land)과 ‘죽속’

<sup>6</sup> G. Martin, “Procedural Register in the Olivet Discourse: A Functional Linguistic Approach to Mark 13,” *Biblica* 90 (2009, 4): 472; U. Luz *Matthew 21-28*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5), 187; F. D. Bruner, *The Churchbook: Matthew 13-28* (Grand Rapids: Eerdmans, 2007), 514; 정훈택, “기독교 종말론: 신약의 종말론 연구”, 91.

<sup>7</sup> G. R. Osborne, *Matthew*,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893.

<sup>8</sup> J. R. Middleton, 『새 하늘과 새 땅: 변혁적-총체적 종말론 되찾기』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이용중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2014]), 275.

<sup>9</sup> Hatina, “The Focus of Mark 13:24-27,” 54-55.

(φυλή, tribe)의 의미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땅’과 ‘족속’이 합쳐질 경우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30절의 ‘땅’과 ‘족속’의 의미를 우주화시켜서 재림으로 이해하려는 오류를 주의해야 한다.<sup>10</sup> 마태복음 24:30의 간본문인 스가랴 12:10은 팔레스틴 땅의 12지파가 회개할 것을 언급한다. 하지만 스가랴 14:17의 팔레스틴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가리키는 땅의 지파들은 마태복음 24:30의 간본문이 아니다. 또 다른 간본문인 다니엘 7:13-14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성부에게로 구름타고 가서 권세를 받는다는 환상이다. 다니엘서의 승귀하신 인자를 옆두에 두면서 마태는 하늘과 땅 곧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부에게서 받아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즉 불신 유대인들이 뒤늦게 통곡한다고 밝힌다. 온 세상의 통치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일부인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자연스럽다.<sup>11</sup> 그러므로 30절의 ‘구름’(직역하면 ‘구름 위에’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은 문자적 구름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심문을 받는 장면에도 유사한 표현과 사상이 나타난다(마 26:64).<sup>12</sup>

<sup>10</sup> 이런 오류는 W. Vosloo & F. J. van Rensburg (eds), *Die Bybellennium: Eenvolumekommentaar* (Vereeniging: CUM, 1999), 1172; Du Rand, *Die Einde*, 306 등에서 쉽게 본다. 이런 우주화의 오류와 더불어 예수님의 오심을 지나치게 세분화한 예는 D. B. Knox, “The Five Comings of Jesus: Matthew 24-25,”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34 (1975, 2): 51에서 볼 수 있다.

<sup>11</sup> 마 24:30과 간본문인 계 1:7의 ‘땅’을 팔레스틴이 아니라 지구로 이해하는 예로는 H. Sasse, “γῆ,” in G.W. Bromiley (ed), *TDNT*, Volume 1 (Grand Rapids: Eerdmans, 1968), 678. 하지만 성경에서 γῆ가 φυλή와 결합되면 예외 없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 12지파를 가리킨다.

<sup>12</sup> Hatina, “The Focus of Mark 13:24-27,” 62;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1027; 양용익, 『마태복음 어떻게

감람산강화의 내용은 오직 AD 70년 사건만 가리키기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모든 종말론적 사건들이 돌성전 파괴로 완료되었다고 보는 완전과거론(full preterism)과 재림이라는 미래적 성취를 인정하면서 주제 전환에 주의하는 부분적 과거론(partial preterism)이 동일한 논리인 것처럼 혼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sup>13</sup> 하지만 감람산강화에는 돌성전 파괴에서 재림으로 주제가 전환된다. 그 전환이 마태복음 24:29가 아니라, 36절에서(참고 막 13:32)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의의 흐름상 자연스럽다.<sup>14</sup> 그렇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 36절 이전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와 이후 재림에 대한 설명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전환과 대조에 주목해야 한다. ‘이’(34절)와 ‘저’(36절), ‘이 세대가 지나가지 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34절)와 ‘예수님도 모른다’(36절), 반위 접속사 δέ(‘데’, 36절), 34절의 ‘이 세대’(ἡ γενεὰ αὐτῆς, 참고 막 13:30)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환란 전 휴거설을 지지하는 전천년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세대’는 주님의 재림(마 24:27, 29) 이전에 대 환란(마 24:21)을 목격할 사람들이 생존할 기간이다.<sup>15</sup> 하지만 감람산강화에 언급되지 않은 ‘7년 대 환란’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460. *Contra* 마 24:30의 ‘땅의 지파’를 롬 11:26의 유대인들의 거국적 회심과 연결하여 ‘회개하는 유대인들’로 보고, 동시에 단 7:13-14를 미래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여 30절을 재림 구절로 이해하는 M. J. Wilkins, *Matthew*,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4), 784. 실제 구름(단수 명사)타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행 1:9-11에 상충하는 견해 즉 마 24:30의 구름(복수 명사)은 실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환상에 등장하는 하늘의 구름이라는 해석으로 홍창표, 『요한계시록해설, 제 1권』 (서울: 크리스찬북, 1999), 164; 김철손, 『요한계시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59.

<sup>13</sup> 예를 들어, D. L. Turner, *Matthew*, BECNT (Grand Rapids: Baker, 2008), 584;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984.

<sup>14</sup>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936; 송영목, “감람산강화의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 『신약연구』 6 (2007, 3): 493-525.

<sup>15</sup> 매스터신학교의 L. D. Pettegrew, “Interpretive Flaws in the Olivet

과 문자적인 ‘휴거’를 찾아 교리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교리를 본문 안으로 주입한 것이 아닌가? 문맥상 ‘이 세대’가 가리키는 자연스러운 의미는 감람산에서 설교를 듣던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이다. 즉 ‘이 세대’는 감람산설교 이후 30-40년을 가리키기에 주님은 AD 70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

또한 주목할 사항은 마태의 논의가 마태복음 24:36과 25:13을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인클루시오 구조에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마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기에 제자는 일상에 충실해야 함을 포괄식 구조에 담긴 구절을 통해서 강조한다.

36절에서 감람산강화의 주제 전환을 찾아야 하는 다른 근거가 있다. 무엇보다 3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질문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1) 돌성전 파괴의 시기, (2) 세상 끝을 초래할 예수님의 *παρουσία*(‘파루시아’)의 징조. 두 질문 중에서 더 난해한 문제는 둘째 것인데, 답은 ‘세상 끝’과 ‘파루시아’의 정확한 개념 정의에 달려 있다. 세상(*αἰών*)은 ‘세대’ 혹은 ‘세계’를 가리킨다. 만약 *αἰών*(‘아이온’)을 세대로 본다면 돌성전이 파괴될 때 임할 유대인의 세대의 끝이다. 아이온을 세상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와 온 세상의 끝을 가리킨다. 제자들에게 돌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였기에, 예루살렘성전의 파괴는 유대인의 세대의 종말을 넘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파괴적 사건이었다.<sup>16</sup> 돌성전 파괴는 승귀하신 주님이 심판자로 파루시아(방문, 현존)하신 사건이며, 세상 끝에도 주님은 가시적으로 파루시아하실 것이다. 3절의 파루시아는 재림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나타남,

Discourses,” *TMSJ* 13 (2009, 2): 186. 패테그루와 같은 전천년주의자들에 의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믿는 유대인을(마 25:9), 오른 편이 양은 믿는 이방인을 가리킨다(마 25:33).

<sup>16</sup>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404.



방문, 혹은 현존을 가리킨다.<sup>17</sup> 따라서 제자들은 3절에서 돌성전의 종말의 징조와 시기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징조와 시기에 대해 동시에 질문한 것이다. 따라서 주님은 이 두 질문에 맞추어 35절까지는 돌성전의 파괴의 징조와 시기에 대해 답을 주셨고, 36절부터는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 설명하셨다.<sup>18</sup> 만약 34절의 ‘이 세대 안에’ 즉 30-40년 안에 돌성전 파괴가 아니라 재림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성부 이외에 아무도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고 밝히는 36절과 상충하게 된다. 오히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설교하신지 30-40년 후에 돌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때와 시기는 알고 계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전무후무한 대 환난 사건이었던(마 24:21, 29; 참고 계 7:14) 성전 파괴는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전환을 맞이한 사건인 동시에, 인류사에 있어서 전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전 파괴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열방을 대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sup>19</sup>

### III. 요한복음 14:1-3

요한은 고별강화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14:1-3과 14:23에서 공통적으

<sup>17</sup> A. Oepke, “παρουσία”, in G.W. Bromiley ed., *TDNT*, vol. 5 (Grand Rapids: Eerdmans, 1975), 858-71.

<sup>18</sup> 계 6장이 강한 간본문성을 가지는 본문인 마 24장을 해석하여 장차 파르티아 군대가 축출된 네로와 힘을 모아 로마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해석은 C. M. Pate, “Revelation 6: An Early Interpretation of the Olivet Discourse,” *Criswell Theological Review* 8 (2011, 2), 49를 보라.

<sup>19</sup> 채영삼, 『궁핍의 목자 예수: 마태복음의 이해』 (서울: 이레서원, 2011), 412.

로 ‘집’ 이미지를 사용한다. 전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을 집을 가리키고, 후자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생존해 있던 제자들을 거처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가?<sup>20</sup> 후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지만, 전자는 거처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급하기에(2a의 아버지의 집의 거주할 곳, 2b의 제자들이 있을 곳, 3절의 예수님이 계신 곳; 참고, 28절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심) 두루뭉술하게 재림 이후에 성도가 들어갈 천상의 거주지라고 단정하기 전에 전후 문맥과 해당 단어의 의미에 주의하며 석의해야 한다.

이 다양한 거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고별강화(요 13-17)의 주요 주제는 재림인가, 아니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범위를 좁혀서 환언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주지는 제자의 죽음, 성령 강림, 주님의 재림 중 어느 개념과 연결되는가? 아버지의 집(요 14:2)은 성부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서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거주할 영원한 거주지인가?<sup>21</sup>

요한복음에서 명사 *oikia*(‘오이키아’)는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주로 관계적 의미인 ‘가족’을 가리킨다(요 4:53; 8:35). 반면에 *oikos*(‘오이코스’)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항상 돌성전과 같은 건물을 가리킨다(요 2:16; 7:53).<sup>22</sup> 그러므로 오이키아가 오이코스보다 더 넓은

<sup>20</sup> 이런 전통적인 해석은 최근에 R. A. Peterson, “Union with Christ in the Gospel of John”, *Presbyterion* 39 (2013): 22에서 볼 수 있다.

<sup>21</sup> 이런 전통적 입장을 잘 보여주는 F. J. Moloney, *The Gospel of John*, Sacra Pagina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394; F. D. Brune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2), 810.

<sup>22</sup> 마가복음에서도 이 두 헬라어 명사는 교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G. D. Kilpatrick, “Jesus, His Family, and His Disciples”, *JNTS* 15 (1982): 3.

의미의 집을 가리키기에 이 둘을 별개의 의미처럼 구분할 수 없다는 버나드(J. H. Bernard)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sup>23</sup> 따라서 2절은 재림 이후에 성도가 들어갈 천상의 장소가 아니라, 성부와 부자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위로의 메시지다(참고 요일 3:2). 그러므로 뒤 따르는 3절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승천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거처(τόπος)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으면(참고 요 13:36-37) 그들의 영혼이 갈 임시적인 천국인 낙원을 가리킨다(참고 눅 23:42-43).<sup>24</sup> 3절의 거처인 낙원은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영으로 계신 곳이며(요 3:13), 얼마 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실 것이다(14:12).<sup>25</sup>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14:6). 예수님은 죄 가운데 거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몇 차례 경고하신 바 있다(7:33; 8:21; 참고 14:19). 주님의 제자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경험하고 있었는데(12:42), 요한복음의 1차 독자의 삶의 정황도 유사했다. AD 1세기 중(후)반의 요한공동체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여 회당이 주는 인맥은 상실하더라도 하나

<sup>23</sup> J. H. Bernard,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II, ICC (Edinburgh: T&T Clark, 1928), 533. 버나드는 요 14:2에서 차등 상급을 따라 크기가 다른 많은 맨션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sup>24</sup> 참고 F. W. Grosheide, *Het Heilig Evangelie volgens Johannes II* (Kampen: Kok, 1950), 294; 송영목, “요한복음 14장의 거주지의 성격”, 『신학논총』 79 (2015): 225-55; *Contra Bernard, Gospel according to St. John*, 535.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의 처소로 데리러 오시는 것은 부활로 시작되며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보면서 주님의 처소를 문자적-비문자적으로 혼용하여 이해하는 예는 R. Schnackenburg,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vol. 3, (New York: Crossroad, 1982), 62-63을 보라. 호로세이드, 바우마(C. Bouma) 그리고 슈낙켄부르크는 요 14:3을 재림 구절로 간주하기에 살전 4:16-18과 간본문으로 연결한다.

<sup>25</sup> 성종현, “죽은 자의 중간상태와 부활의 몸”, 『신약논단』 19 (2012, 2), 457-92.

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변함없으며, 그들이 순교하더라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이다.<sup>26</sup>

거주지가 요한복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는 용례 뿐 아니라, 고별강화의 문맥도 위의 결론을 지지한다. 고별강화 직전 단락의 요점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다(요 12:23).<sup>27</sup> 여기서 영광을 얻음은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게 될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12:25-26).

그리고 요한복음 14:15 이하와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과 역할을 언급하기에, 14:1-14에서 재림을 논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의 전으로서 살되,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 죽더라도 영은 낙원에 갈 것이다(참고 요 11:16; 13:37). 그 낙원에 있던 영은 재림 시에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여(참고 살전 4:14) 썩은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육체는 영원한 처소에 살게 될 것인데, 고별강화는 이 처소를 소개하지 않는다. 이런 고별강화의 문맥과 더불어 요한복음 14:1-14의 구조도 재림과 영원한 거주지가 초점이 아님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14:1-3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뒤 따르는 10-14절에서 반복된다. 14:4-6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성부와 동등하신 그

<sup>26</sup> F. F. Segovia, "The Structure, Tendenz, and Sitz im Leben of John 13:31-14:31," *JBL* 104 (1985, 4), 490.

<sup>27</sup> Segovia, "The Structure, Tendenz, and Sitz im Leben of John 13:31-14:31," 475, 479.

리스도의 신적 특성을 강조하는데, 이 기독교적 강조점은 바로 뒤 따르는 7-9절에서 반복된다.<sup>28</sup> 따라서 성부께서 위임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성부에게로 가시게 될 예수님을 제자들이 현재적으로 신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요한복음 14:1-14보다 범위를 더 넓혀 14:1과 27절의 인클루시오 구조를 염두에 둔 14:1-27의 구조 역시 위의 결론을 강화한다:

A. 근심하지 말라(14:1)

B. 하나님의 가족과 거주지(14:2-6)

X. 성부와 동등하신 신적 특성을 가지신 예수님(14:7-11)

C.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될 제자들(14:12-18)

B' 예수님과 제자의 상호 거주(14:19-24)

C'. 제자에게 임하실 성령(14:25-26)

A'. 근심하지 말라(14:27)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가족이며, 장차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한은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복합적인 교차 구조를 가진 이 단락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부합하는데 (20:31), 예수님은 신적 특성을 가지신 분(7-11절) 곧 하나님의 아들 그

<sup>28</sup> 김상훈, “요한복음 13-17장의 요한식 문체-구조 연구”, 『신약연구』 13 (2014, 3): 449.

리스도로서 믿는 제자들에게(1, 10-12절)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19절의 ‘살아 있다’).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 분량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1주일 전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다(참고, 요 12:1의 ‘유월절 엿새 전에’). 이 기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별강화의 중심 메시지가 재림이 아닌 것은 요한복음의 동사의 용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한복음의 전체 동사 3,575개 중에서 미래 동사는 사용 빈도가 낮아 4.41%를, 아오리스트 동사는 1,306회가 등장하여 35.2%를, 현재 동사는 1,572회에 걸쳐 45.5%를 차지한다. 이 통계는 요한과 1차 독자들의 현재적 경험에 과거 사건이 종속되어 있고, 현재적 경험이 과거 사건을 관통하여 그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공관복음 기자들보다 요한은 미래 동사의 빈도를 낮춤으로써 불특정 미래 사건보다(예를 들어, 요 5:28-29; 6:39; 12:48의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스도와와의 현재적 연합의 중요성과 실현된 종말을 더 강조한다.<sup>29</sup>

#### IV. 데살로니가전서 4:16-17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재림은 논의의 전환점이라는 전략적 위치에 5회나 등장하여 논리를 전개시키는 심장 박동과 같은데, 재림의 리듬은

<sup>29</sup> S. Pancaro, “A Statistical Approach to the Concept of Time and Eschatology in the Fourth Gospel,” *Biblica* 50 (1969, 4): 513, 520-24.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발생할 사람이 거주하는 갱신된 지구에 관해 관심이 없다는 논의는 M. Pamment, “Eschatology and the Fourth Gospel,” *JSNT* 15 (1982), 83-84. 참고로 요한복음 기자가 초대교회의 미래-묵시-신화적 종말론을 현재-실존적 종말론으로 대체했다는 볼트만의 견해에 대한 동의는 R. Kysar, “The Eschatology of the Fourth Gospel: A Correction of Bultmann’s Redactional Hypothesis,” *Perspective* 13 (1972, 1): 31에서 볼 수 있다.

편지 전체에 고르게 퍼져있다: 서론 겸 감사를 전하는 1:9-10; 바울의 전도 사역에 감사를 전하는 2:19; 바울의 기도인 3:12-13; 본격적인 미래 종말론 논의를 시작하는 4:15; 결론적으로 복을 비는 5:23.<sup>30</sup>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성부께서 결정하셨기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대로(마 24:36; 행 1:7), 바울도 미래 종말론을 오해하여 혼란을 겪은 데살로니가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밝힌다(살전 5:1). 그러므로 재림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찾는 것은 바울의 의도를 벗어난다. 따라서 바울은 재림의 주도권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실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형 ‘주께서 친히’(αὐτός ὁ κύριος, 살전 4:16)로 강조한다. 사람들은 재림의 특별한 징조가 없기에 평안하다고 생각하며 일생생활을 지속할 것이다(살전 5:3; 참고, 마 24:38).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잠자던 성도의 영혼도 함께 강림할 것이다(살전 4:14).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의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처형당한 강도의 영혼처럼 낙원에 있다(참고, 눅 23:43).<sup>31</sup>

데살로니가전서 4:16-17에서 재림의 양상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는 성도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거되는(ἀρπάξω) 것이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 시에 교회의 문자적인 휴거가 있다고 말하는가?<sup>32</sup> 라이트(N.

<sup>30</sup> E. E. Johnson, “Preaching in 1 Thessalonians,” *Journal for Preachers* 28 (2005, 3): 22.

<sup>31</sup> 참고, 박형용, “바울의 재림론,” 『신학정론』 25 (2007, 1): 57.

<sup>32</sup> 여전히 논란이 되는 롬 11:26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림의 연관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유대인의 거국적 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된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논증은 N. T. Wrigh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5 [2013]), 948-49; B. K. Merkle, “Romans 11 and the Future of Ethnic Israel,” *JETS* 43 (2000): 709-21을

T. Wright)는 묵시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문자적으로 성도가 공중으로 들려올라가는 것을 반대한다.<sup>33</sup> 이 두 절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휴거를 포함한 예수님의 재림의 양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단어는 17절의 명사 *ἀπάντησις*(‘아판테시스’)다. 이 명사는 신약에서 두 번 더 등장하는데, 신부 집에 있던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 마중 나가서 신랑과 더불어 신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마태복음 25:6과 로마 성도가 바울을 맞이하러 압비오 시장까지 마중 나가서 만난 후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사도행전 28:15이다. 따라서 이 명사는 신약에서 3회에 걸쳐 ‘손님을 마중 가서 만난 후 원래 있던 곳으로 모시고 돌아옴’이라는 뜻으로만 사용된다. 이 단어의 그레코-로마 배경은 황제가 피지배지를 지정된 날에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환호하는 나팔을 불며 특별한 의복과 월계관을 착용한 채 마중 나가서 황제를 도시 안으로 모셔 들이는 의미다.<sup>34</sup> 마찬가지로 빛에 속하여 깨어 있는 성도(살전 5:5)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게 된다(살전 4:16).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의 어떤 정복자의 방문보다 더 위대할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그리고 재림 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는 썩지 않을 육체를 입을 것이며(참고, 고전 6:14; 15:53), 복음

---

보라. 신약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주장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가혹한 응보적(hard punitive),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마감되었다는 유연한 경륜적(soft economic), 그리고 창조나 구원보다는 언약과 이스라엘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신학적 강조가 약한 구조적 대체신학(structural supersessionism)으로 세분화 된다. 참고, R. K. Soulen, *The God of Israel and Christian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6).

<sup>33</sup> 참고,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564.

<sup>34</sup> J. A. D. Weima, *1-2 Thessalon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14), 333; P. H. R. van Houwelingen, *Tessaonicensen*, CNT (Kampen: Kok, 2002), 138-39.



으로 훈련된 성도는 사역자의 자랑스런 면류관이 될 것이다(살전 2:19).<sup>35</sup>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은 어느 정도 크기이며, 음량은 얼마인가? 성도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때 그 구름은 얼마나 크고 두꺼운가? 이러 질문은 바울이 이 단락에서 묵시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간과하고 문자적으로 접근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우문(愚問)이다.<sup>36</sup>

그런데 부활한 성도가 공중으로 휴거되어 재림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sup>37</sup> 17절은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다. 공중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하늘 처소로 올라가는가? 아니면 갱신된 지구로 다시 주님을 모시고 내려오는가? 황제를 마중 나가서 만난 후 다시 모셔 들어온다는 이 단어의 용례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데, 성도는 갱신된 지구로 재림의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온다. 이런 세상의 갱신 개념은 베드로후서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의 신천신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갱신’(παλιγγενεσία; 마 19:28)과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행 3:19-21)에서 죄인이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ἀνάψυξις, refreshing)과 만유의 ‘회복’(ἀποκαταστασις, restoration of the perfect state before the fall)과 일치한다.<sup>38</sup>

<sup>35</sup> R. H. Gundry, “A Brief Note on Hellenistic Formal Receptions and Paul’s Use of ἀπάντησις in 1 Thessalonians 4:17,”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6 (1999): 39–41.

<sup>36</sup> R. W. Canoy, “Teaching Eschatology and Ethics,” *Review and Expositor* 96 (1999): 254.

<sup>37</sup> 플루타르크, 세네카, 플리니, 호레이스의 글과 그레코-로마의 비문에는 “죽음이 사자(死者)를 가로챈다(snatched up, ἀρπάζω)”라고 기록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성도를 들어올리신다고 밝힌다. Gieschen, “Christ’s Coming and the Church’s Mission in 1 Thessalonians,” 48.

<sup>38</sup> Weima, *1-2 Thessalonians*, 335; B.L. Merkle, “Who will be Left Behind?: Rethinking the Meaning of Matthew 24:40–41 and Luke 17:34–35,” *WTJ* 72 (2010): 176; Middleton, 『새 하늘과 새 땅』, 37, 234.

지구 갱신 사상은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장례문화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차원의 지지를 확보한다. 데살로니가교회가 죽은 성도의 미래에 대한 문제로 고민한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죽음과 장례를 공동체적 명예의 관점에서 살핀 흥미로운 연구가 캐나다 퀸즈대학교 아스코우(R.S. Ascough)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sup>39</sup> 아스코우에 의하면 로마제국의 마케도니아와 데살로니가의 비문과 파피루스에 의하면, BC 2세기에 종교와 직업과 장례에 있어 자발적으로 상호연합에 가담한 사람의 비율은 30%였다. 그리고 상호연합의 유형 가운데 가입비와 정기적인 회비로 운영된 장례 상호연합의 재정은 사망한 회원들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무덤과 비문은 가상적 친족(fictive kinship)이었던 상호연합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자(死者)의 공동체적 지위와 명예를 생존해 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현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무덤은 더 넓은 사회적 배경 안에서 사자의 공동체적 정체성과 문화적 동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사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연합할 것을 교훈한다. 바울은 그 당시 장례 상호연합이 지닌 공동체적 정체성과 명예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 개인의 부활과 구원을 완성한다는 차원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명예로운 공동체에 소속될 것을 강조한다. 데살로니가의 불신자들은 비록 관념적으로 장례를 명예로운 공동체적 신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에 슬픔과 수치 가운데 있었는데(살전 4:13),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했다.

<sup>39</sup> R. S. Ascough, "A Question of Death: Paul's Community-Building Language of Community in 1 Thessalonians 4:13-18," *JBL* 123 (2004, 3): 509-21.

실제로 ‘소망이 없는 슬픔’은 바울 당시 비문에서 흔히 발견된 문구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참 소망, 참 명예, 참 공동체적 소속이 무엇인가를 현시한다고 그 당시 문화적 관습과 대비하여 강조한다. 바울 당시 이방인의 종말론에 의하면, 세상은 위협을 받고 있기에 세상 전체 혹은 일부는 멸절되어 소멸될 것이며, 오직 신들만 그 멸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에 바울은 죄악 된 세상이나 죽은 육체가 멸절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갱신된다고 교훈하며 교회를 위로한다.

신약에서 종말론에 대한 교훈은 필연적으로 윤리로 이어지다. 바울은 재림 시에 부활, 휴거, 공중에서 신천신지로의 강림이라는 종말론을 통해서 윤리적 교훈을 주기 원한다. 재림을 준비하는 윤리적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소망 없는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말고(살전 4:13)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깨어 있는 삶이다(5:6-8).<sup>40</sup>

## V. 베드로후서 3:8-13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 성전과 세상의 종말에 관해 예언하신 설교를 감람산에서 들었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며 떠나실 때도 감람산에 있었다. 사도 베드로는 재림(주의 날, 뱀후 3:10; 하나

<sup>40</sup> 초기 영지주의는 악한 몸으로 범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건 고린도의 방종파(고전 6:18),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 에베소의 적그리스도(요일 2:22), 박해를 피하도록 음행을 조장한 니골라당(계 2:14)에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데살로니가교회에 죽은 자의 운명에 대해 근심하게 만든 거짓 선생들도 악한 몸의 부활을 부정한 영지주의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와 생활을 조장하는 영지주의는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문제가 된 불륜 조장 사이트 애슬리 매디슨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회원 중 90%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했다. 기독교 신앙이 불륜을 죄로 여겨서 청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증거다.

님의 날, 벤후 3:12)의 지연으로 인해 이단이 설파한 종말론으로(벤후 3:4) 혼동을 겪던 터어키의 여러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향해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설명하면서 지구 갱신론과 소멸론 중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환언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대비되는 지구의 구성 요소인 στοιχεῖα(‘스토이케이아’, 개역개정판은 ‘물질’, 바른 성경은 ‘원소들’, 참고, 4마카비 12:13; 지혜서 7:17)가<sup>41</sup> 불에 소멸되어 없어지는가?<sup>42</sup> 아니면 새롭게 정화되는가?<sup>43</sup>

재림과 관련된 본문 중 하나인 베드로후서 3:10에 대한 본문 비평이 필요하다. NA 28판과 GNT 5판은 이전 판에서 34개를 수정했는데, 모두 일반서신 본문이다(약-5개, 벤후-9개, 벤후-10개, 요일-4개, 요이-2개, 요삼-1개, 유-3개). 그런데 가장 큰 수정은 베드로후서 3:10인데, 마지막에 οὐχ εὕρεθήσεται(‘우크 휴레쎄세타이’, will not be found,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으로 수정함으로써 이전 판(will be found; ⋈ B NET ESV NIV NRSV 등)에 없던 부정어 οὐχ(‘우크’, not)를 추가했다. 수정된 표현은 고대 대

<sup>41</sup> D. J. Moo, *2 Peter, Jud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6), 190; G.L. Green, *Jude & 2 Peter*, BECNT (Grand Rapids: Baker, 2008), 330.

<sup>42</sup> 벤후 3:5, 7절이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언급하기에 소멸론이 옳다는 주장은 Moo, *2 Peter, Jude*, 191. 벤후 3:10과 12절의 στοιχεῖα가 사 34:4 LXX에 근거하여 해와 달 같은 광명체(디오게네스)를 가리킨다는 논의는 C. L. Blaising,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An Exposition of 2 Peter 3:1-18,” *Bibliotheca Sacra* 169 (2012): 398-99; P.H. Davids, *II Peter and Jude: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1), 103을 보라. 그런데 베드로가 사 34:4를 벤후 3:8, 10의 간본문으로 염두에 두었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비교, 말 3:19 LXX), 주님의 재림 때 실제 해와 달과 별이 땅으로 떨어질 이유는 없으며, 지구만 제외된 채 달과 별이 강렬한 불에 의해서 타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sup>43</sup> 벤후 3장의 ‘현재 하늘과 땅’은 물리적 우주가 아니라 정치적 세계 질서를 가리키며, AD 70년에 사라지게 된다고 보는 입장은 P. J. Leithart, *The Promise of His Appearing* (『새로운 질서가 오다』, 안정진 역, 서울: SFC, 2012 [2004]), 173, 177. 하지만 AD 70년 사건은 재림의 지연으로 혼란을 겪었던 터어키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벤후 3장의 문맥에 부적합하다.

문자 사본들과 다수사본(κατακαήσεται, will be burned up; KJV)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총 3개의 고대 번역본(시리아, 라틴, 콥틱)의 지지만 받을 뿐이다. 보컴(R. Bauckham)은 οὐχ εὐρεθήσεται를 고대 번역가들이 원본을 교정한 결과로 추론한 바 있다.<sup>44</sup> 그렇다면 NA 28판 편집인들이 부정어 οὐχ가 원본에 있다고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나름대로 내증을 고려했던지, 아니면 οὐχ가 들어간 더 어려운 독법이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새로운 독법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이 언제 드러난단 말인가? 베드로는 재림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일들과 점과 흠도 다 드러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적인 심문과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벧후 3:14).<sup>45</sup> 헬라이어 본문을 변경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책임 있는 본문비평, 번역,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세상의 보존 언약과 맥락을 같이 하여(창 8:21-22), 베드로는 창조 세계의 파괴가 아닌 죄의 파괴로 인한 세상의 갱신을 강조한다.<sup>46</sup> 세상 갱신의 근거는 많다. 물로 세상의 죄악이 심판을 당했지만(창 7:11; 벧후 3:6) 세상 자체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는 않았다. 이전 편지에서 베드로는 노아 홍수를 기독교 세례의 모형으로 보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듭난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살겠다는 서약으로 이해한다(벧전 3:16, 21). 따라서 베드로에게 있어 물은 죄악을 제거하고 세상을 갱신하는 이미지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sup>44</sup> R. Bauckham, *Jude, 2 Peter*, WBC (Waco: Word, 1993), 303.

<sup>45</sup> Green, *Jude & 2 Peter*, 330.

<sup>46</sup> Blaising,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401; R. C. Sproul, *1-2 Peter* (Wheaton: Crossway, 2011), 285; D. Keating, *First and Second Peter, Jude* (Grand Rapids: Baker, 2011), 185; Middleton, 『새 하늘과 새 땅』, 242, 289.

땅'(벧후 3:13)에서 형용사 '새로운'(καλός)은 질적 새로움 즉 갱신을 의미한다(참고, 계 21:1-2). 불이 정화시킨다는 이미지는 베드로전서 1:7에 서도 볼 수 있다(참고, 말 3:2).<sup>47</sup> 덧붙여 베드로가 재림의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한 밤에 들이닥치는 도둑의 이미지(벧후 3:10)는 예수님의 감람산강화 후반부(마 24:43-44)와 바울 서신에서도 볼 수 있다(살전 5:2).

이사가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염두에 두고 회복을 예언할 때 언급한 '신천신지'(사 65:17; 66:22)를 베드로(벧후 3:13)가 공유한다. 이사야에게 신천신지는 포로 귀환과 더불어 시작될 회복을 예고하는 이미지이므로, 신천신지에 대한 교훈을 단지 예수님의 재림과만 문자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주님의 초림 이전에 살았던 이사야의 의도를 넘어서는 것이다.<sup>48</sup> 이사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할 때 묵시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죄악 세상의 파국을 언급함 없이 다윗 왕국의 범위를 넘어선 에덴의 갱신 이미지와 더불어 묘사한다(사 65:25). 따라서 이사야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 창조의 한 부분이자 핵심 사항이다.<sup>49</sup> 신천신지에서 형용사 '새로운'(καλός)은 질에 있어 새롭게 한다는 것을 가리키지 무로부터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죄를 제거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구를 없애버리지 않으셨듯이, 재림을 통해서 지구를 없애버리지 않고 타락 이전 상황 이상으로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다.<sup>50</sup>

<sup>47</sup> '피조물에 임할 우주적 오순절'이라고 부르며 기존의 세상이 보존, 영화, 치유, 갱신, 승귀, 해방, 정화, 변형된다고 보는 D. Harlink, *1 & 2 Peter* (Grand Rapids: Brazos, 2009), 183-84.

<sup>48</sup> R. P. DeBorst,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Community Restored," *Journal of Latin American Theology* 5 (2010, 1): 48.

<sup>49</sup> J. W. de Gruchy,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An Exposition of Isaiah 65:17-25,"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05 (1999): 67, 69.

<sup>50</sup> P. R. Raabe, "Dad, Will Animals be in Heaven: The Future New Heaven," *Concordia Journal* 40 (2014, 2): 150, 157. 컨콜디아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라베는 예수님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있어 신천신지는 전적으로 재림과 더불어 시작될 미래의 실체인가? 아니면 재림 이전에 부분적으로 실체가 임하여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인가? 요한은 신천신지가 재림 이전에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라!’(ἰδοὺ)와 더불어 현재시제 동사로 밝힌다(계 21:5): καὶ νῦν ποιῶ πάντα(‘카이나 포이오 판타’,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밑줄 강조는 필자의 것).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신천신지 이미지를 요한과 더불어 공유했던 베드로의 입장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3:13에서 사용하는 현재시제 동사 ‘바라보다’(προσδοκῶμεν)는 신천신지의 ‘이미’의 측면 곧 현재성과 무관하다. 베드로는 이 현재 동사를 통해서 단지 신천신지가 임하기를 기다린다고 소망을 표현할 뿐이기에, 신천신지가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대하지 않는다.<sup>51</sup> 그런데 ‘거하다’(κατοικεῖ, 벰후 3:13) 동사가 사람과 연관될 때 실제 땅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림 시에 지구는 첫 창조 때처럼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되고 갱신될 것이다.<sup>52</sup> 따라서 베드로에게 있어 불 이미지(벰후 3:7, 10-12)는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천신지에서 죄가 일으킨 왜곡, 부패, 불의, 죽음은 제거될 것이다. 신천신지는 첫 창조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진다. 지구의 구성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연속적이지만, 지구의 죄와 더러움은 사라지고 구성요소의 질은 변형되어 갱신되므로 불연속적이다. 그런데 재림은 지구의 구성 요소만 갱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짐승과 함께 거하신 것(막 1:13)을 사람과 동물이 신천신지에서 완전한 조화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예견하는 종말론의 근거로 제시한다.

<sup>51</sup> 사 65:17a LXX(Brenton)은 미래 시제(ἔσται)를 사용하는데, 영어 번역(LXA)도 미래형이다: “For there shall be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이런 미래 시제는 베드로의 이해와 일치한다.

<sup>52</sup> Raabe, “Dad, Will Animals be in Heaven,” 151, 157.

신시키는데 국한되지 않고, 만유 곧 우주의 갱신도 초래할 것이다. 오염된 행성과 대기와 우주는 사라지지 않고 지구처럼 정화될 것이다.<sup>53</sup>

재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화되어 완전한 의를 누리게 된다면, 이런 사람의 영화와 회복을 실제 공간도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재림 시에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변하게 될(μετασχηματίζω, transform, 참고 빌 3:21) 사람과 마찬가지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식물, 동물 포함)도 재림 때 있을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롬 8:18-25).<sup>54</sup>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동물도 신천신지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존재할 것이다(참고 창 9:9-10; 호 2:18).

## VI. 요한계시록 21-22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둘 성전과 세상의 종말에 관해 예언하신 설교를 감람산에서 들었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면 떠나실 때도 감람산에 있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첫 번째 구절에서 중요한 해석 지침을 제공한다.<sup>55</sup> 계시록 1:1의 두 번째 동사 δεικνυμι(‘데이크누미’)와 마지막 동사 σημαίνω(‘세마이노’)가 결합되면, 요

<sup>53</sup> B. Witherington, III, *Letters and Homilies for Hellenized Christians*, vol. II: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2 Peter* (Leicester: IVP, 2007), 381-82.

<sup>54</sup> Raabe, “Dad, Will Animals be in Heaven,” 152.

<sup>55</sup> 참고로 구름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본 땅의 지파들이 애곡한다는 계 1:7은 둘 성전 파괴를 위한 방문을 가리키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이 아니라는 논의는 송영목, “계시록 1:7절의 간본문적, 내적 간본문적 해석, 그리스도 완결적 읽기”, 『교회와 문화』 25(2010): 131-54를 참고하라. 하지만 신동욱은 1:7을 로마제국을 파괴하기 위한 주님의 오심으로 보는데, 이것은 땅과 지파를 로마로 오석한 것이다. 신동욱,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가?”, 『신약논단』 17 (2010, 4): 1125.



한이 보았던 환상을 문자적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sup>56</sup> 이 두 동사는 계시록의 상징으로 가득한 환상을 해석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환상에 등장하는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숫자 1000이 기간과 연결되면 긴 기간을 가리키고, 사람과 연결되면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 계시록 20:1-6의 천년왕국은 사탄을 무찌르신 예수님과 그분의 승리를 공유하는 교회를 묘사하는 12:7-11과 용어 및 주제에 있어 병행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전체 통치를 가리킨다.<sup>57</sup> 이 통치가 재림으로 종료되면 최후심판(20:11-15)이 뒤 따른다.<sup>58</sup>

요한은 계시록 21-22장에서 어린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성(21:2-22:5)과 새 하늘과 새 땅(21:1)을 소개한다. 이 두 환상은 미래적 환상이지만 박해 하에 있던 1차 독자들을 위로하고 무엇이 적합한 행실인가를 교훈하는 현재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sup>59</sup> 여기서 공통적인 형

<sup>56</sup> 최선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무천년왕국에 대한 해석학적 쟁점(계 20:1-7)”, 『신약연구』 12 (2013, 4): 939-41.

<sup>57</sup> 참고 송영목, 『요한계시록: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통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서울: SFC, 2013), 349-51; 정훈택, “기독교적 종말론: 신약의 종말론 연구”, 101.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계시록은 무엇보다 요한 당시의 사건과 연관있음을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때가 가깝다”라는 인클루시오 구조가 보여준다는 사실이다(1:1, 3; 22:6, 10). 계시록의 재림이나 종말론을 떠올릴 때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계시록 20:1-6에만 언급된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주해가 아니라 교리적 해석만 요청하지 않고, 더욱이 성경의 종말론 전부를 설명하는 마스터키도 아니다. 천년왕국도 1차적으로 박해 하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다. 계시록 6:9-10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유사한 표현이 20:4에 나타나기에, 박해를 받아 순교한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행되는 전체 기간인 천년왕국 기간에도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피할 수 없다. K. L. Gentry, Jr., “Postmillennial Vision of Christian Eschatology,” *Criswell Theological Review* 11 (2013, 1): 91.

<sup>58</sup> 요한 당시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큰 성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여 소아시아 7교회를 구원하심(계 1-19),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통치 기간인 천년왕국(계 20), 그리고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신천신지(계 21-22)라는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을 위해 서 송영목, 『요한계시록: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통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보라.

용사 ‘새로운’(καλός)은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new in quality) 즉 이전에 존재하던 질적으로 떨어지는 옛 것이 갱신되어 회복되는 것을 가리킨다.<sup>60</sup> 장르상 계시록과 관련있는 유대묵시문헌에서 새 예루살렘성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종말에 회복하실 새로운 도시다(2바룩 4:1-3; 1에녹 90:28-29; 4에스드라 10:53; 4QFlor 1:1-7).<sup>61</sup> 이런 유대묵시 문헌의 빛 속에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성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완벽한 거주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다.<sup>62</sup> 하지만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장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인격으로 이해한다(21:9-10).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될 큰 성 음녀 바벨론(계 17-18)과 대조되는 새롭게 된 어린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계시록 21:2의 새 예루살렘성의 간본문은 이사야 62:1-2인데, 이사야는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예루살렘’을 언급한다. 요한처럼 이사야는 범죄로 단절되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결혼은유로 설명한다(사 62:5). 그리스도의 신부는 위로를 받아서 슬픔과 우는 것과 아픈 것이 지나가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계 21:4). 이 복은 포로 중에 기승을 부렸던 죄와 사망이 사라진 결과다(사 25:8). 이처럼 이사야와 요한은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새 창조 주제로 장소가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예고한다.<sup>63</sup>

이 신부의 거주지가 오염과 탄식이 제거된 갱신된 세상 곧 신천신

<sup>59</sup>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Leicester: IVP, 2005), 524.

<sup>60</sup> B. K. Blount, *Revelation* (Louisville: WJK, 2009), 376.

<sup>61</sup> R. S. Schellenberg, “Seeing the World Whole: Intertextuality and the New Jerusalem(Revelation 21-22),” *Perspective in Religious Studies* 33 (2006, 4): 469-70.

<sup>62</sup> 예를 들어, 옛 것의 소멸을 통한 새 창조를 주장하는 김철손, 『요한계시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366. 새 예루살렘성을 장소와 인격으로 동시에 보는 입장은 Du Rand, *Die Einde*, 357-58.

<sup>63</sup> G. K. Beale, 『신약성경신학』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2011]), 564-65.

지다. 계시록 19:7의 아내(γυνή)가 21:2에서는 신부(νύμφη)로 묘사된다. 이런 명사의 차이는 요한이 21:2에서 어린양의 아내를 위한 거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신부’ 곧 ‘아내’를 가리키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유사어를 사용한 것으로 자연스럽다.<sup>64</sup>

구약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 자신이었다(민 18:20). 마찬가지로 어린양의 신부인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계 1:6; 22:4)의 기업은 자신들을 장막 삼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자신이다(계 21:3, 7, 22).<sup>65</sup>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이원론적 구분을 통합시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66</sup>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계 21:2, 10). 그러므로 지상의 성도는 하늘 시민권 소유자답게 위에 것을 찾아야 하기에, 하늘과 땅의 구분이 허물어진다.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는 도시이자(계 21:12) 중간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동산이다(22:1-2). 정금으로 지어진 장광고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으로 동일한 새 예루살렘성 신부(계 21:16, 18)는 정금으로 도배된 지성소를 연상시키므로(왕상 6:20-22; 겔 45:1-5) 지성소 이미지와 에덴동산은 맞물리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교재가 있던 타락 전의 에덴동산은 이후의 지성소를 여러 가지로 예고하기 때문이다.<sup>67</sup>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교재가 성령으로 가득한 어린양의 신부라면 신랑 예수님에게 ‘속히 오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한다(22:17). 계시록

<sup>64</sup> D. J. MacLeod, “The Seventh ‘Last Thing’: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Rev. 21:1-8),” *Bibliotheca Sacra* 157 (2000): 443.

<sup>65</sup> S. L. Rico, “Thirsting for God: The Levitical Inheritance Motif in the Apocalypse,” *WTJ* 74 (2012, 2): 417, 422.

<sup>66</sup> Schellenberg, “Seeing the World Whole,” 470-76.

<sup>67</sup> 최초의 성소는 에덴동산이었다는 상세한 논의는 Beale, 『신약성경신학』, 626-29.

의 1차 독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는 신랑 예수님이 그들이 당한 박해와 시련으로부터 속히 오셔서 건져주시길 기대했다. 동시에 7교회는 언젠가 있을 재림도 기대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22장의 예수님의 오심은 복합적이기에, ‘속히 오시다’를 논할 때 박해 중의 소아시아 7교회를 건지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는 것과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sup>68</sup> 그러므로 성도의 현재적 기다림은 미래적 기다림과 하나로 연결된다.

새 예루살렘 성 곧 성도는 신천신지에서 살게 된다. 그런데 위(4. 베드로후서 3:8-13)에서 논의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신천신지의 실현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한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신천신지가 임한다고 밝힌다(사 65:17).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양한 난관을 겪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러 말할 것인데 하나님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사 65:24).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시지만, 신천신지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사 66:2, 5). 이 사상을 이어 받아 요한도 신천신지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성 안에 들어온 어린양의 신부는 두려움과 불신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거짓말을 버리고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계 21:8).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미래의 실체를 소망하도록 하면서 새 창조 사역에 자기 백성을 현재적으로 동원하신다(계 21:5의 현재 동사 ποιῶν).<sup>69</sup> 새 예루살렘 성이 몇 가지 이원론적 구분을 통합하듯이, 신천신지도 이런 구분을 통합한다. 환언하면, 만유를 현재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sup>68</sup> 신동욱,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가?”, 1138.

<sup>69</sup> De Gruchy,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73.

세상이 이미 새롭게 되어 가고 있기에 미래의 ‘아직 아니’의 측면을 신부는 미리 맞본다. 신부의 현재적 갱신은 성도의 성화를 가리키며, 신천신지의 현재적 갱신은 만유의 회복상의 회복을 가리키는데 각각 미래적 갱신의 완성을 향하고 있다.<sup>70</sup>

## VII. 나오면서: 종합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 성도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천상의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예배하면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은 성도가 바친 충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 80평, 50평, 10평처럼 다양한 맨션(참고 Vulgate의 *mansio*)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참고 찬송가 236-237장). 그런데 만약 큰 상을 받은 성도가 남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서 80평 맨션을 차지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고역이 아닌가? 이런 통속적인 재림과 그 이후의 양상은 신약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으로 계시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듯이, 승천해 계신 곳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강림하셔서 그들도 영화롭게 변혁시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화롭게 변혁된다면, 교회가 생존할 실제 지구와 만유 역시 영화로운 거처로 변혁되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피조물 및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탄의 소원에 장단 맞추어

<sup>70</sup> 참고로 히브리서의 종말론은 새 언약의 중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땅과 하늘의 수직적 대립이 통합된 것이라는 논의는 이풍인, “히브리서의 종말론: 수직적 관점과 수평적 관점의 융합”, 『신약연구』 12 (2013, 2): 348-51을 보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파괴하여 없애버리시는가? 아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죄로 변질된 만유는 변혁과 갱신과 회복을 맞이할 것이다(참고, 빌 3:21; 골 1:20).<sup>71</sup> 예수님과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도인 바울, 베드로, 요한은 재림으로 인한 만유의 갱신과 천국의 완성을 일관성 있게 아래의 표와 같이 증거한다.

구분	마 24-25	요 14	살전 4	벧후 3	계 21-22
재림의 때	성부만 아심	오순절 성령을 통한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언급은 있음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회개를 위한 기회가 끝날 때 도둑같이 임함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통치 기간인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재림의 징조	노아 홍수 직전처럼 일상생활이 지속됨	언급 없음	사람들은 거짓 평안 속에 거함	재림을 부인하며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음	여러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과 큰 성 음녀 바벨론의 대결이 지속됨
재림의 방향	갱신된 지구 안에 있는 신부 집으로 들어오시는 신랑 예수님	재림과 부활 이전에 죽은 성도의 영이 올라갈 낙원은 언급됨	성도는 휴거된 후 갱신된 지구로 주님과 함께 내려옴	불로 죄가 정화된 신천신지	신부의 거주지인 새 예덴 같은 신천신지
재림의 준비 <sup>72</sup>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활용하여 깨어 있어야 함	재림 준비 차원으로 국한되지 않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성령의 거처로 살아야 함	소망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빛의 갑옷 입고, 승리의 면류관인 교회를 세움(참고 살전 4:4의 아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므로,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 살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속히 임할 신원을 기대하며, 재림도 멸망해야 함

<sup>71</sup> A.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9), 281.

이 연구를 통해서 시초론(protoology)은 모형으로서 종말론을 예견하고, 종말론은 실체로서 시초론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타락 이전의 완전한 창조 세계는 변질되더라도 폐기처분되지 않고 언젠가 갱신될 것을 내재적으로 표방하고 예견한다. 창조된 세상은 타락으로 변질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만유를 재창조하여 완성시킨다. 신약 성경의 재림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을 중심과 절정에 둔 구속사의 전진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눅 17:21; 행 28:31)이시고 만유시므로(골 3:11), 재림의 주님은 천국과 만유의 재창조 과정을 종료시킬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과거로 돌아가서 시초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동시에, 계시록 21-22장의 새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시초의 회복도 기대해야 한다. 성도는 천국과 만유를 지금도 회복하고 계신 천상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해야 한다.<sup>72</sup>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으로 개시된 그리스도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의 현재적 윤리를 촉진시킨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논의의 전환점마다 재림이 위치하여 심장 박동 역할을 하듯이,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세상의 갱신을 소망하는 성도의 심장 박동을 되살릴 것이다. 본 연구가 재림에 대한 상세한 주석적 연구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sup>72</sup> 신약 저자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설명할 때 창조 때 재정된 '결혼' 은유를 종종 사용한다(창 2:24; 마 10:6-9; 22:30; 고전 7; 엡 5:22-33; 계 19:6-8). 재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 사이의 절정적인 연합 사건이다. M. A. Mininger, "Eschatology and Protology, Christ and Culture: Marriage as a Biblical Test-Case,"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5 (2014): 138

<sup>73</sup> Mininger, "Eschatology and Protology, Christ and Culture", 129. 덧붙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와 만유가 이미 변혁되고 있다는 설명은 황창기, 『예수님, 만유, 그리고 나』 (서울: 생명의 양식, 2010)을 보라.